

평화선언문 - 한반도와 동북아를 평화체제로

하늘과 땅, 물과 바람, 물고기와 새, 모든 생명들이 한 몸이며 한 마음입니다. 세상 만물은 땔레야 땔 수 없고 서로 나눌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임을 부처님은 끊임없이 설하셨습니다. 남과 북이 마음을 활짝 열고 인류가 추구해야하는 보편적 가치에 충실 한다면 집착과 분별을 넘어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60년간 냉전체제와 국가이기주의의 산물로 인해, 아집과 자비심의 부재로 인해 분단의 아픔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잠시 중단한지 60년 동안 통일을 원한다고 하면서 진정성 있는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고통만을 지속해 왔습니다.

과거 삼국시대에 신라와 백제, 고구려는 서로 원수처럼 싸웠지만, 수백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모두를 한민족의 역사로 배우고 있듯이 수백년 뒤 역사시간으로 보면 지금의 남북 갈등은 미명에 빠져 행한 어리석은 일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전60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은 커녕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 등 전쟁의 극단적 일촉즉발 상황까지 가기도 했으며, 급기야 북한의 핵무기개발까지 이르는 심각한 관계로 치닫는 상황이 된 것을 깊이 우려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통일이 이루어 질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듯 남북의 이익을 위해 적대와 불신의 지속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적 관점으로 화해하고 교류 협력하는 평화적인 관계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만 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 경제교류협력을 재개하는 것은 서로 통합적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남북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남한과 북한의 평화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드는 길이며, 인류의 문명사적 전환의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통일과 평화의 안목은 문명사적 전환의 의미 있는 미래지향적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땅히 60년간의 정전체제는 평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불자와 시민들이 모여 한국전쟁 정전60주년을 맞이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음악은 벽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자비의 음악이 한반도 곳곳에 울려 퍼져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양축합니다.

마음속의 경계선을 없애고 이미 하나로 연결된 미래의 남북을 살아가고 만들어어나가는데 힘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가 공고히 이루어 질것을 염원하고 선언합니다.

불기2557(2013)년 9월 3일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봉행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